

다시 보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기독교 평화주의

이봉석 (배화여자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평화의 섬 제주 강정 마을이 군사 전략 지역으로
- III. 민족주의, 이기주의, 현실주의가 낳은 평화신학의 시대적 요청
- IV. 기독교 소종파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평화
- V. 나오는 말

• ABSTRACT •

A Review of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at Gangjeong and Christian Pacifism

Lee, Bong-Seok

In 200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clar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n island of peace. The government is, however, paradoxically, building a naval base at Gangjeong Village on Jeju Isla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building of this facility points at the need for a naval base being the result of international tension and competition. Nevertheless, public opinion is divided on this issue. This article approaches the topic of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from the position of Christian pacifism.

This study comprises three chapters. The first chapter examines the actual building of the base. The necessity of peace theology is the subject of the second chapter, since mainstream Protestant politicians and congregants have not been willing to listen to the views of pacifist protester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We found that two groups support a "realist position" that is in favor of the construction of the base: the military and the South Korean builders. The last chapter, which is the main chapter of this study, argues in favor of Christian pacifism propagated by Leo Tolstoy—who denounces national military violence—and summarizes the thoughts of Mennonite theologian and ethicist John Howard Yoder, who calls for reciprocal obedience between the nation and its citizens. Finally, we explore pacifism as believed by Quakers, including the belief that nothing can damage the relationships that human beings share.

Key words: Realistic position, Christian fundamentalism, Just war theory, Tolstoy, Reciprocal obedience, Small pacifistic Protestant sects.

I. 들어가는 말

세계화를 통해 재화와 용역 그리고 자본의 이동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졌다.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 유럽과 북미에서의 경제위기가 곧 남한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계화가 낳은 결과이다. 지역과 문화의 차별 없이 하나의 사건이 전체에 파급되는 동시성은 세계화의 특성이다. 또한 각 나라의 일반시민들이 노동의 유연성 원칙과 자유경쟁에 근거한 공장이전 때문에 실업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도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세계화의 현상이다. 개인과 국가 모두가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보다는 성장에 맞춘 정책을 실행하다보니 국가 간 힘의 마찰이 발생한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극동 아시아의 한국 사회의 조건이다.

세계화의 다른 측면으로 종교적 근본주의가 21세기에 다시 등장한다. 그것이 회교 근본주의가 되었든 아니면 기독교 근본주의가 되었든 경제제국주의 세계화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특히 9.11 테러의 알카에다는 부시 정부의 기독교 근본주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근본주의는 폭발력을 내장한 채 사람들을 전쟁 혹은 냉혹한 경쟁으로 이끄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한다. 최근 냉전 이후 보스니아 내전, 체첸,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르완다, 수단 등에서 발생한 전쟁은 자원 확보와 관련된 전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과 갈등이 전쟁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종교적 영향력이 현실 정치의 근거가 되고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전의 세계화 속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다시 보면 기독교는 자신의 힘, 즉 정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온당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주류 기독교가 성스러운 전쟁 이론에 근거하여 잘못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¹⁾ 더욱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2007년부터 5년 동안 정부와 군부 그리고 토건세력(삼성과 대림)²⁾은 기지건설을 필요의 이름으로 강행하고 있고 한기총과 일부 대형 교회는 평화단체와 종교단체의 기지건설 반대시위를 이념적으로 공격하고 있다.³⁾ 그리고 오키나와의 미 해군 기지는 그 적성국을 중국으로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강정 마을의 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더하면 평화에 대한 현실주의 입장은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다목적 해군기지의 건설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어 낡고 퇴행적인 부족주의로 혹은 군사주의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신학의 현실적 필요가 증가한다 하겠다.

이 논문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한기총과 일부 대형 교회들의 입

-
- 1) 주류 기독교의 범위를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의 교회들과 일부 대형 교회로 정한다. 특히 일부 대형 교회들은 각 교단의 입장 표명을 초월해서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소속의 교회와 교단들은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기총과 KNCC 사이의 대립되는 입장 속에서 한기총 소속의 교회와 교단의 수적 우위를 감안하여 주류 기독교의 범위를 한기총 소속 교회와 교단들 그리고 일부 대형 교회로 정하였다. 논문 속에서 주류 기독교라함은 한기총과 일부 대형 교회들을 지칭한다.
 - 2) '제주해군기지, 삼성컨소시엄과 대림컨소시엄이 맡아 추진' 제주일보, 2009년 7월 24일자, 인터넷 판. 뉴스제주의 양지훈 기자에 따르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항만공사 외곽 1공구는 삼성물산컨소시엄이 방파제 1,492m(사업비 3,168 억 원)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삼성물산컨소시엄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건설, 덕영종합건설, 성지건설, 해양종합건설 등 6개사이다. 항만공사 내곽 2공구는 대림산업컨소시엄이 계류부두 2,235m와 방파제 953m를 건설하는 것이 추진되었다. 대림산업컨소시엄에는 대림건설, 현대건설, 계룡건설, 태영건설, 삼환기업, 범양건설, 금나종합건설, 신광종합건설, 영보종합건설 등 9개사가 포함되었다. 해군기지 건설은 남한의 종합건설회사 15개가 참여한 프로젝트이다. 토건세력이라는 말은 15개의 대형 건설회사의 참여에서 나온 말이다.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2558>
 -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소속 교단과 교회는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일부 대형 교회들에 반대되는 입장이다.

장이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 치유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 정책을 근본주의적 종교 경험으로 편드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군기지를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따라서 건설하려는 현실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기독교 평화주의를 다시 고찰하려 한다. 인류문명의 위기의 순간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는 기독교 평화주의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부족주의 이익에 집착한 특수성과 현실주의가 간과했던 극동 아시아 평화의 보편성인 대화의 원칙을 상기시킨다는 데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II. 평화의 섬 제주 강정 마을이 군사 전략 지역으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다. 그러나 64년 전 제주에는 국가폭력, 두려움, 학살, 죽음이 섬 전체를 휩쓸었다. 제주 4·3사건으로 제주도민이 입은 내상과 외상은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로 기억되고 있다. 2005년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이 환호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평화의 섬 선포는 제주 4·3의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애쓴 노무현 정부의 노력이다.

2005년 1월 27일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사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세 개의 실천사항을 제시 한다. 하나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한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 제주도를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 셋째로 제주도에 평화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끝으로 선언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세계평화 증진에 앞장 설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⁴⁾ 실제적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남한의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과 제주도에 회담을 갖았다. 제주도는 평화 정착을 위한 동아시아 외교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반 평화적 군사 계획들이 추진되었고, 2012년 중앙정부는 그 사업을 완결 지으려 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3년 12월에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국방부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1997~2001 국방 중기계획’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반영되었다. 2002년 해양수산부는 2차(2002~2011)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제주도는 화순항의 해군부두 건설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화순항 문제의 전면 검토를 약속하였다. 2002년 12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제주 화순항의 해군부두 건설계획은 유보 되었다. 그 결과가 2005년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계획을 발표 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고 노무현 정부의 아이러니 이다. 어떻게 군사기지가 있는 섬이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든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 논리와 해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존 일변도의 국방 문제를 자주국방을 축으로 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강정마을의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군기지 건설 초안은 김영삼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홈페이지: <http://peace.jeu.kr/portal.php>

정부(1993~1998)에 작성된 것이고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노무현 정부는 기지건설을 재추진 했다. 이 둘은 우과와 좌과를 상징한다. 어떠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가진다해도 평화를 실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사회를 혼동으로 이끌었으며, 이후 기지 건설의 후보 지역도 화순 항에서 위미 항으로, 다시 위미 항에서 강정마을로 바뀌면서 갈등은 더욱 커져갔다.

정부와 건설세력 그리고 해군 군부세력이 해군기지건설 사업을 집요하게 밀어붙인 과정을 주요 사건일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면, 2007년 3~4월 김태환 도지사, 지역도의원, 당시 윤태정 강정마을회장 등의 밀약으로 해군기지 유치 계획이 은밀히 추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고, 이에 대한 정황 증거도 있다.⁵⁾ 4월 27일 윤태정 마을회장은 마을총회를 급조로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였다. 실상 윤태정 마을 회장은 생태마을을 강조하던 사람이다. 그런 윤태정 회장이 1,500명의 마을 주민 중 80여명을 모아 놓고 그야말로 후다닥 해군기지 유치 찬성을 결정하고 이를 기자회견으로 공론화한 것이다. 5월 14일 김태환 도지사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강정을 해군기지 최종후보지로 결정한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건설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이다. 천주교 강우일 주교는 이에 강력한 반대 운동에 돌입하였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윤태정 회장의 해임과 강동균 마을회장의 선출을 결정 하였고 해군기지건설 찬반 투표를 실행하였다. 94%의 반대로 공식적인 반대투쟁이 시작되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우근민 지사가 해군기지 해결을 우선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5일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공식 수용입장을 발표한다. 12월에는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 무효소송

5) 조영배,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기독교사회, 『기독교 사상』, 2011, 197.

도 법원에서 각하 당하였으며, 2011년 3월 14일에는 제주도의회가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 등의 취소를 의결하였다.

사건일지를 통해 볼 때, 국가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해군 군부세력과 건설세력(삼성과 대림 외 13개 종합건설사 참여)이 기지를 건설 하겠다하면, 법과 행정관청은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무시하고 절대보전지역 마저도 해제해 준다. 그리고 대법원은 주민들이 해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적법으로 판결해 준다(2012년 7월 5일). 더욱이 해군기지 건설과 이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립을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여당이나 야당도 그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⁶⁾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저항이 계속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11년 12월 30일 제주 해군기지관련 2012년 예산을 1,327억 원에서 1,278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 하였다.⁷⁾ 1,278억의 기지건설 예산이 삭감 되었다 해도 기지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말은 아니기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정치권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이 “남겨진 49억 원 역시 직접 공사비와 관련이 없는 육상 설계비(38억)와 보상비(11억)로, 사실상 제주 해군기지건설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예산 반영으로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해군 측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원하는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민주당의 설명은 수사학적 표현이다. 건설 총예산 9,799억 원(95%), 크루즈항 건설 총예산 534억 원(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1조

6) ‘강정을 위한 정치는 없다, 한겨레21, 제902호, 2012년 3월 19일자, 인터넷 판. 새누리당은 기지건설을 결정한 주체가 참여정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참여정부 원죄론’을 내세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세를 편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582.html

7) ‘제주 해군기지 예산 1,278억 삭감…31일 여 야 합의 처리’, 제주의 소리, 2011년 12월 30일자, 인터넷 판.

333억 원이 설정된 계획이다.⁸⁾ 해군, 삼성과 대림, 정치인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새누리당의 입장 역시 대선외 보수표를 의식하여 사업 중단은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공군과 해군의 군사기지가 있는 섬이다.⁹⁾ 미국의 항공모함과 20여척의 전투함과 잠수함이 제주도에 들어와 정박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장병과 그 가족 7,500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자.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완화 된다고 할 수 있을까?¹⁰⁾ 한반도 주변의 패권국들은 다수 핵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군비의 50%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2011년 4월 11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비는 6,980억 달러(한화 754조 원)지출했고, 다음으로 중국이 2012년 국방예산이 1,060억 달러(118조 900억 원), 러시아가 587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545억 달러를 지출하여 군비지출 세계 5위로서 지금 보통국가에서 군사대국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¹¹⁾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의 논

8)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360억 확정',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15일자, 인터넷 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27790.html>

9) 김동주,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춰라」, 녹색평론사, 『녹색평론』, 통권 제120호, 2011, 21-29. 2006년에는 공군의 제주도 전략공군기지 추진계획이 알려졌으며, 이후 공군은 명칭만 남부탐색구조부대라고 변경해 창설 추진을 공식 인정했다.

10) 이유철,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의 대안적 모델과 베이징 평화 프로세스」, 『진보평론』, 제40호, 2009년 여름호, 261. 이유철은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9·11사태 이후 미국은 군사개편 프로그램에 따른 아태 지역 미군들의 개편과 재배치,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지키스탄에 미군기지 확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대 중국 전략라인 구축, 즉 중국 포위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 중국 압박 및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계산에서 나온 전략이다."라고 진단한다. 우리는 강정 마을이 이러한 미군의 군사 개편 프로그램에 한 부분이 안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유철은 동북아시아의 협조체제를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역내 다자주의의, 즉 다극체제로서 국제질서의 민주화를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평화의 정착은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상호 협조를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이를 수 있다고 본다.

11)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나눔사, 2012), 143-149 참조. 유경동은 세계

리로서 ‘대양해군’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다. 해군기지 건설의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동의한 해군기지는 제국주의 힘겨루기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국제 분쟁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의 조직적 시스템에 저항하는 종교의 평화정신의 가치가 중요하다.

III. 민족주의, 이기주의, 현실주의가 낳은 평화신학의 시대적 요청

세계화 속에서 남한의 해군과 정부는 안보 현실주의나 특수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는 퇴행적 부족주의로 자신들의 행동의 지침을 삼았다. 즉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의 변화된 개념 위에 제국주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대양해군’ 개념이 혹은 ‘군사적 평화’ 개념이 가져올 동아시아에서의 갈등과 긴장고조는 분명하다.¹²⁾ ‘군사적 평화’라는 토대적 개념이 잘못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퇴행적 부족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군사주의에 기대는 평화는 21세기에 적합한 평화 이론이 될 수 없다. 범 세계시민으로의 보편성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조너선 색슨의 설명은 오늘날의 평화를 더욱 잘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부족주의 민족주의 군사주의 같은 특수성은 불완전한 것

군비지출 자료를 설명한 이후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군사적 평화를 이루는 대안으로서 중립화를 제안한다.

- 12) 김동주,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춰라」, 녹색평론사, 『녹색평론』, 통권 제120호, 2011, 21-29. ‘대양해군론’조차 지난해 천안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 사건의 영향으로 해군 내부에서 폐기했고, 올해 4월 관련법 개정으로 완전히 폐기되었다. 주적인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 바다에 존재할지 모르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비는 나중의 일이라는 것이다.

이고 오류와 편협과 편견의 원천으로서 전쟁을 낳는다. 특수성이 가진 배타성을 넘어서 차이의 존엄을 인정하는 다원성으로 나아가야 문명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정치가 해야 할 화해의 담론을 종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너선 색슨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및 경제 지도자들이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너무도 타당하다.¹³⁾

『세계사 구조』를 쓴 가라타니 고진 역시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역할에 주목한다.

“글로벌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것으로는 지금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근대 세계체제 중에서 개인의 문제로서, 정치로부터 모습을 감추었던 종교가 전면적으로 부활해온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¹⁴⁾

가라타니 고진은 신자유주의를 제국주의로 이해한다. 약육강식의 사회 진화론이라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제국주의이다. 약육강식의 투기 자본적 교환방식의 세계구조를 바꾸어야 시장과 자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제적인 경쟁의 격화를 막을 수 있고, 대량실업의 위험을 없앨 수 있다. 특히 그는 평화운동과 혁명운동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평화의 의미를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지 않으며, 평화는 국가 간의 적대성이 없어진 상태, 즉 국가가 지양(止揚)된 상태를 지칭한다. 그의 평화의 의미가 무정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제도이다. 부족주의, 민족주의, 군사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13) Jonathan Sacks, *Dignity of Difference*, 임재서 역, 『차이의 존중』(서울: 말·글빛냄, 2010), 49.

14) 가라타니 고진, 「평화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혁명」, 녹색평론사, 『녹색평론』, 통권 제 115호, 2010, 115.

파시즘은 ‘국가’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했고 정당한 전쟁이론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가 구상하듯이 국가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것이 평화의 실현에 가깝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가라타니 고진은 증여의 원리에 의한 사회계약, 노동자가 경영자인 협동조합, 지역통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에서 국가가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회에 맡기면 된다.¹⁵⁾ 특히 ‘증여의 힘’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의미가 없어진다. 실제로 미개사회에서는 전쟁의 위기가 있으면 먼저 증여행위로써 그것을 해소했다. ‘증여의 힘’이 작동하는 세계의 토대에 바로 종교가 이다. 평화운동, 혁명 그리고 종교가 서로 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의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 안전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다. 기지건설의 논리가 자원과 재화를 둘러싼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 혹은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 속에 있다. 보수적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논리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먼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윤태정 당시 마을 회장에 기인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조를 한 이가 강정교회(예장 통합)의 김용원 집사이다. 그의 독선과 근본주의적 신앙이 해군기지 강정유치에 큰 몫을 하였다. 그는 “찬성하는 자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반대하는 집사들은 나머지 정탐꾼”이라고 말하고 다녔다.¹⁶⁾ 그리고 해군기지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해군과 제주시의 논리를 현실주의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현실주의와 근본주의적 신앙이 가하는 독선은 자신만이 옳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용원 집사 외에도 이분법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15) 같은 책, 127.

16) 조영배,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2011, 07, 193-211.

독단적 언어를 사용하는 근본주의 신앙의 소유자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예장통합의 한 대형교회 서경석 목사는 3.1절 기념행사를 하는 장충체육관에서 “3월 8일 제주 강정마을에 개신교인들을 몰고 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가톨릭교회와 맞짱을 뜨겠다.”고 말하였다.¹⁷⁾ 이어서 감리교의 한 대형 교회 김홍도 목사는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우리나라를 북한이 장악 한다면 일제치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현재 김정일 아들 김정은과 남한 내 좌파 세력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미국, 이승만 대통령, 재벌, 그리고 기독교이다. 공산주의는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있으므로 마귀의 사상으로 우리가 적화 통일 시에도 맞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 기독교자유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가 적색당 국회의원 수염이라도 잡고 늘어질 용기를 갖고 사상무장. 신앙무장에 힘쓰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만이 옳고 평화를 위한 모임은 틀리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부족주의 이다. 이들의 생각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기독교 전통이 수용한 현실주의적 입장의 정당전쟁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정의를 결여한 왕국은 강도떼가 아니고 무엇인가? 강도떼 역시 그 자체로는 작은 왕국이 지 않은가?”라고 말하였다.¹⁸⁾ 그가 이처럼 말하는 것은 로마제국의 전쟁과 평화를 연구한 이후 ‘하나님의 도성’에 상반된 ‘지상의 나라’에 존재하는 폭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성을 위하여 ‘지상의 나라’에 존재하는 폭력을 정의와 사랑으로 억제할 현실적 필요가 여기서 나온다.

17) ‘서경석 목사 “개신교, 제주 강정에서 가톨릭과 맞짱뜨겠다” 선전포고’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2012.03.02, 인터넷 판.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9>

18) Saint Augustine, *The City of God*, 조호연·김종흡 역, 『하나님의 도성』(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226.

개신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이버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정리한다면:

“이 세상의 나라에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누룩이 퍼지게 한다는 어거스틴의 양식은 고전적 사상이나 중세적 사상보다 적절하다. [...] 어거스틴은 모든 ‘지상의 평화’는 그것이 계속되는 한,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오래 가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더 큰 사랑이 나 충성심이 여러 집단의 자기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 집단적 자기 이익이 사회를 경쟁하는 집단 사이의 공공연한 싸움이나 ‘승리하면 악덕의 노예가 되는’ 지배적인 집단의 부정에 떨어뜨릴 것이다.”¹⁹⁾

니이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묘사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이익에 따른 긴장, 불화, 경쟁과 공공연한 충돌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여기에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제압해야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현실주의적 입장이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종교 근본주의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입장을 남용한 것은 바로 가상의 대항 국을 실제의 적으로 삼아 불필요한 긴장과 충돌을 일으킨다는데 있다.

이러한 근본주의 신앙으로의 퇴행을 이츠하크 라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이츠하크 라빈(1922~1995)은 1993년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장 아라파트와 팔레스타인 자치원칙에 합의하는 등 중동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유대교의 극우파 청년의 눈에는 창세기 15장 18절에 기록된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는

19) Reinhold Niebuhr,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차명관 역, 『기독교 현실주의와 정치문제』(서울: 현대문명과 한국, 1973), 138.

야훼의 언약을 라빈 총리가 어긴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폭력적 종교적 증오심 혹은 근본주의적 유대교 신념을 따라 1995년에 그를 암살한다. 이처럼 근본주의(시오니즘) 신앙인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데는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배신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화를 위해서는 타협과 양보가 필요한 데다 원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평화에는 정당방위나 국가의 영광이니 애국심이니 자부심이니 하는 분명하면서도 명쾌한 구석이 없다.²⁰⁾

미국의 근본주의자 부시의 경우에서도 퇴행적 부족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부시는 ‘예방전쟁론’을 들어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들을 공격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방전쟁론’은 미국의 주도권을 전제한다. 즉 ‘예방전쟁론’은 미국의 지배력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는 미국의 본원적 권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예방전쟁론’은 다른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강압이다.²¹⁾

다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평화 윤리학자 박충구의 한국 교회의 평화 수준 진단은 평화주의자에게 의미가 있다.

“서구 기독교는 문명사적으로 일치를 이룬 기독교 세계의 종교로서 이웃 종교나 타문화권에 대한 적대감과 우월성을 교리화했고, 막강한 서구제국의

20) Jonathan Sacks, 앞의 글, 25.

21) Wilfried Rohrich, *Die Macht der Religionen*, 이혁배 역, 『종교 근본주의와 종교분쟁』, (서울: 바이북스, 2007), 115. 빌프리트 뢰리히 는 근본주의 신앙과 정치의 연결을 통해 분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이해한다. 그는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투철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국에서 부시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의존했다.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크고 강력한 개신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전체 미국인의 50퍼센트를 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톨릭교 신자들과 미군의 해외 주둔을 지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교 우파적 단체들이 이런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가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세력을 통하여 그 우월성을 입증했으며, 식민 지배를 통하여 획득한 재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간주하면서 기독교 문명과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풍토가 없었다면 서구 세계에 의하여 침탈된 500년 아시아의 식민 경험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이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지배자들의 세계에서 형성된 신학과 종교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수받은 셈입니다.”²²⁾

한국 교회는 박충구의 한국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 평화 운동가들에게 “이런 기독교의 특질이 시민 사회적 현실과 만날 때 그 사회 윤리적 판단 능력에서 시대착오적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라는 박충구의 말에 공감을 넘어 아프기까지 하다. 그의 말처럼 개발과 번영신학보다 물리섬과 청빈의 신학, 평화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한 폭력론을 주장하는 것보다 무저항 비폭력적 평화의식, 그리고 위계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교권질서 대신 형제자매간의 평등관계, 제의 중심의 영성을 주장해 온 교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일상의 영성적 삶을 기독교적 가치라고 믿고 살아온 소종파 신앙인들의 전통을 오늘날 다시 복원해야 할 것이다.²³⁾ 이제 정당전쟁론을 따르지 않는 평화주의 입장에 서는 신학적 담론을 살펴보자.

IV. 기독교 소종파에서 다시 고려해야 할 평화

평화를 이 땅위에 정착하고자 노력했던 기독교인 중에 톨스토이를 떠올릴 수 있다. 오늘날 톨스토이라고 하면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사상이나

22) 박충구, 『예수의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157.

23) 위의 책, 174.

유행이 지난 정신으로 평가할 지도 모른다. 이렇게 평가 되어진 이유는 그가 기독교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모든 무정부주의자가 그랬듯이 자신의 평화사상을 정치조직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산에 빠르고 책략에 능하여 조직화를 업으로 삼는 정치인들을 능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의 깊이의 측면에서 톨스토이의 평화사상은 여전히 종교가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에 영감을 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은 여전히 커다란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세계의 질서를 바꾸는 근원적 혁명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국가는 폭력이다』에서 세상의 권력 질서를 전복한다. 그에 따르면, “공화국에서는 아이들이 애국심이라는 터무니없는 미신과 국가에 대한 복종이라는 가공의 의무를 배운다. 나중에 이 세뇌의 영향력은 종교와 애국심의 장려로 유지된다.”²⁴⁾ 그래서 정치권력이 폭력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 위에 자리 잡고 있음은 명확하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비난한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정부 자체를 비난한다. 군주제 지지자와 보수주의자, 자본주의자는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비난 한다. ... 어떤 당파가 승리하든 그 당파는 권력을 유지하고 고유의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폭력적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심지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²⁵⁾

위의 인용은 평화가 전쟁이 없는 ‘팍스 로마’의 제국주의 상태일 수 없다는 의미 속에서 정치가 결코 평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오늘날의 평화주의 인식과 같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군대를 폭력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하

24) 레프 톨스토이, 조윤정 역, 『국가는 폭력이다』(서울: 달팽이, 2008), 23.

25) 위의 책, 26.

기 위해 또 그들의 노동 생산물을 강탈하기 위해 군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한 국가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국경선 넘어 폭력을 사용하여 국민을 착취하는 다른 국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의 약탈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는 다투어 군사력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소설 『바보 이반』에서 이러한 사실을 희극적으로 묘사한다. 사실 소설 속에서 바보 이반이 세운 군대나 돈이 없는 나라는 그가 꿈꾸었던 이상 사회의 모델이다.

톨스토이와 같이 국가에 대한 저항의 측면에서(보다 엄밀히는 군부의 의도에 대한 저항이지만)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을 생각해보면, 해군이 강정 마을에 다목적 기지를 건설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 증강을 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동 중국해의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도(靑島)앞에서 러시아와 대규모 해군 합동훈련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힘의 우위성을 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은 또 기지를 건설할 것인가? 결코 일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오히려 톨스토이의 직관이 본질에 해당한다.

“노동자(제주도민)들에게 땅이 없고 게다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양식을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권리조차 없다면, 그것은 그가 그런 상황을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 -지주들이 노동 계급한테 땅과 그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이 비정상적인 사물의 질서는 군대에 의해 지탱된다.”²⁶⁾

2011년 11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12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

26) 위의 책, 35.

산을 1,000억이 넘게 삭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예산 삭감이다. 그러나 지금도 기지 건설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도대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건설의 주체인 군부와 토건 세력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의도는 애국심이나 국익과는 전혀 상관없다. 신우파(뉴라이트)와 연계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오늘날 주류 한국 기독교가 되었고, 이들이 말하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전쟁론에 근거한 자주국방은 군부와 건설 세력의 이익을 세련되게 포장한 것이다. 이제 국가의 복종 요구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 것인가는 순전히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인 자각에 달렸다.

다음으로 16세기 종교개혁시기에 등장했던 개신교 소종과 메노나이트의 존 하워드 요더는 ‘혁명적 복종’ 개념을 자신의 평화주의의 토대로 삼았다. ‘혁명적 복종’ 개념의 기원은 예수의 사역과 가족 법전으로 불리는 골로새서 3장 18절-4장 1절에 두고 있다.²⁷⁾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들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서 요더는 서로 복종하라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윤리적 명령을 발견한다. 즉 상전도 종에게 복종해야 하는 상호적인 복종으로서 자발적

27)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권영경 역, 『예수의 정치학』(서울: IVP, 2007), 288. 초대교회가 왕국이 도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규례의 경우는 스토아 철학으로부터 차용된 것이다. 따라서 요더는 스토아적인 자연신학 혹은 당위로 귀착되는 것에 경계를 표한다.

복종이다.²⁸⁾ 권위적 위계질서가 낳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상호복종은 없다. 한 쪽의 일방적 수용만이 있을 뿐이다, 즉 관료와 이해 당사자는 모든 도구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 복종을 요구한다. 어쩌면 요더의 ‘혁명적 복종’에 감동을 받아 기득권자가 오만한 권력의 행사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낙관적이며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²⁹⁾ 그러나 종교의 힘은 이상적 순진함에서 나온다. 정치가 권력을 가졌다면 종교는 영향력을 가졌다. 이 영향력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것일 때 정치도 어떻게 해보질 못한다. 많은 종교단체가 강정마을에 모여 평화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더의 ‘혁명적 복종’개념은 개인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기에 톨스토이의 생각이 그랬듯이 그 영향력이 약할 수 있다. 그러나 비폭력 무정항의 평화주의는 정치와 다른 문제 해결 방식이며 예수 역시 이러한 방식의 저항을 통하여 로마의 평화 제국주의를 상대로 했다. 요더에 의하면 예수는 유대인들이 이미 비폭력 저항의 경험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에 기대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빌라도가 가져온 가이사의 상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는 목숨을 건 시위를 소개한다. 이어서 빌라도가 수로 공사를 위해 성전 금고를 유용한 것에 대하여 비폭력으로 저항한 것을 부각시킨다. 이처럼 팔레스틴 유대인은 로마 군대를 상대로 10년 사이 두 번의 비폭력 저항을 한 것으로 보아 예수가 비폭력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불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가장 의로운 명분에서의 폭력의 사용도 거절 하였다.³⁰⁾ 그러므로 예수의

28) 위의 책, 307. 예수가 인간 공동체의 영속적 삶에 필요한 사회 윤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다른 곳으로부터 사회 윤리를 빌려왔다. 이러한 의견은 학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29) 정원범, 『신학적 윤리와 현실』(서울: 쿰란출판사, 2004), 101. 정원범은 요더의 『예수의 정치』를 우주론, 교회론, 종말론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30) John Howard Yoder, 신원하·권영경 역, 위의 책, 164-165.

가르침 속에 폭력의 부적절한 사용을 배제하는 데 민감해하거나 경계심을 가지라는 단순한 요청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수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한 말씀은 바로 정당방위에서의 검의 사용도 용인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한기총과 일부 대형교회의 콘스탄틴주의가 책임의 범주에서 정당전쟁론을 주장하는 데 요더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폭력의 사용은 ‘우상숭배의 결과’이다.³¹⁾ 즉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신과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두려는 시도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이다. 정당전쟁이론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차용한 꼴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교회론적 근거에서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회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로부터 벗어난 영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방법을 선택했다.³²⁾ 종교적인 관심과 사회의 관심을 분리한 것은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르고 있는 선택과 같다. 그러나 요더에 의하면 예수는 사회적 의미의 구원을 강조하며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을 말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로써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요더는 ‘근원적 혁명’이라 불렀다. 즉 기존 사회적 관습에 저항하여 다른 가치를 세우는 독특한 공동체 운동이다.³³⁾ 요더의 새로운 백성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생각

31) Jacques Ellul,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박동열·이상민 역, 『뒤틀려진 기독교』(대전: 대장간, 2012), 47-48. 엘룰은 콘스탄티누스주의를 기독교와 로마 권력과의 결합으로 소개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포기한 것은 결국 승리와 놀라운 성장 때문이라고 기술한다. 무신론 철학자 미셸 옹프레도 기독교가 평화적이기보다 폭력적이라 고발한다. 그는 『무신학의 탄생』에서 콘스탄티누스주의로부터 기독교가 확장되었고 이후 모든 불의와 폭력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고 기독교를 비판한다(Michel Onfray, *Traité d'athéologie*, 강주현 역, 『무신학의 탄생』(서울: 모티브북, 2006), 200-606).

32) 정원범, 앞의 책, 48; John Howard Yoder, 신원하·권영경 역, 위의 책, 261.

33) John Howard Yoder, 신원하·권영경 역, 위의 책, 264. “교회는 경제적 차별과 인종

하면 이들은 초기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를 주도한 마을의 기독교인과 강정마을에 모인 종교인들이다. 평화와 환경을 생각한 이들은 개발과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의 확장에 맞섰다. 그러므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하는 근본주의 신앙에 근거한 기독교인은 요더가 말하는 근원적 교회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종말론적 근거에서 요더는 요한 계시록의 요약을 통하여 평화주의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두 세대 속에서 산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적 권세의 세대이다. 전자는 강제와 사용을 중지한다. 그러나 후자는 강제와 힘을 사용한다. 종말론 없이 강제와 힘을 사용하는 자세는 교회와 세상을 동일시하여 악을 그 정황으로부터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이처럼 종말론이 없으면 두 세대는 뒤섞인다.³⁴⁾ 두 세대가 융합될 때 그리고 현실주의가 주류가 될 때 교회는 이교화 되고 국가는 전적으로 악마화 된다.

요더의 평화주의는 어떤 목적과 명분 때문에 폭력과 전쟁이 쉽게 용인 되는 현실에서 다시 눈여겨 보아야 할 사상이다. 그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따르기 힘든 제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를 포함하여 기독교는 평화주의 전통을 버리고 정당전쟁 전통으로 옷 입을 제국주의적 모습을 띄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는 예수의 복음을 현실주의적인 복음으로 재편성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이중구조 안에 각색된 이후 사실상 기독교 주류 역사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함으로써 1500년 정도 지속된 로마제국주의의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 이후에도 정치적 제국성을 경제적 식민주의로 교체한 서구세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기능해 왔다.³⁵⁾ 이러한 의미에서 박충구 교수의 분석의 타당함을 보자.

차별의 극복이 실현되는 새로운 인간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더는 쓰고 있다.

34) 위의 책, 407-409. 참조

“진리와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자기 왜곡을 멈추고 기독교의 참된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기독교 내부의 ‘자유’의 지평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유의 혼이 없다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예언적 기능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³⁶⁾

끝으로 또 다른 개신교 소종파 웨이커 신앙공동체가 평화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웨이커교도들은 삶을 단순 겸소하게 살아가는 원칙을 가짐으로써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 평등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평등하게 피조된 생명 간에 혹은 인간과 인간 간에 관계를 어떠한 우월적 폭력으로 훼손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이들의 평등주의는 세속 권력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직자의 영적 우월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웨이커교의 평등주의가 기독교 평화 운동으로 20세기에는 생명평화 운동으로 확산되어 많은 이의 지지를 받고 있다.³⁷⁾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각각의 입장 차이는 공존해 왔다. 4세기 이후 기독교가 힘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과 다른 이들에게 배타적이었다.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평화는 사라지고 안전의 중요성이 더 큰 가치로 여겨진 것이다. 결국 기독교 공동체가 안전을 우선시할 때 기독교는 정복주의 사상으로 진화되어 나갔다. 중세 가톨릭과 십자군 전쟁, 영국 성공회와 영국의 식민지주의, 최근 미국의 개신교 근본주의와 미 제국주의 등은 힘의 우월성과 영적 우월성에 근거한 기독교 승리주의로서 종교와 세상 권력의 융합이다. 웨이커들은 역사로부터 권력의 잔인성, 관료적 질서의 냉혹함을 분명히 보았으며, 권력의 악마적 속성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다.

35) 박충구, 앞의 책, 191-192.

36) 위의 책, 228.

37) 박충구, 『기독교 윤리사II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97.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은 모든 현실주의적 기득권을 포기 하였다. 즉 성직, 공직 그리고 모든 권력구조가 주는 지배력의 효용성을 포기하였다. 오늘날 주류 기독교 교회가 행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권력구조가 주는 지배력의 효용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웨이커의 평화주의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전쟁은 사실 평화를 위한 방법이기보다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동원되어 왔기 때문이다.³⁸⁾ 웨이커의 평화주의 원칙에서 어떤 유형의 폭력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들의 평화주의 원칙은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원칙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억압과 착취가 없는 거래 문화 촉진에, 여성 권리 확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웨이커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권력의 악마적 속성이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평등이 아닌 위계질서와 구조적 폭력이 있기 때문이다. 웨이커에 따르면 복음은 다툼이 있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싸우고 언쟁하는 체하지만 한기총과 일부 대형 교회들 그리고 정치세력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이들 그리고 반대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은 무언의 동의자로서 복음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평화주의와 관련된 사람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들의 평화사상에 대하여 미연합감리교회 사회원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연합감리교회에서 평화적 대안이 실패했을 경우에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연합감리교회 사회원리는 “우리는 우리가 전쟁과 폭력에 대해 만

38) 위의 책, 208-209. 박충구가 인용한 『웨이커 평화주의 선언』을 보면 그들의 평화주의적 입장에 현실주의적 입장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어떤 전제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모든 외적인 전쟁과 징벌 그리고 다툼을 철저히 부정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증언입니다. [...]”

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평화주의자의 증언을 존중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⁹⁾ 감리교의 이러한 입장이 지켜질 때 강정마을에서의 대화는 열릴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는 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와 평화의 중요한 사안이다. 단순히 물류 수출입의 길목을 지키는 차원의 기지 건설이 아니라 정확히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건설이 추진된 것이다. 평택에 이어 제주 강정마을에 이처럼 대규모 기지가 건설되어 정규적인 군사훈련이 시행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안보소동은 구조화된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기적 행위자인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큰 안보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인위적으로 냉전시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건전한 평화관계에 대한 위협행위이다.

다음으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시민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야할 자연환경을 관계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파괴하고 있다. 우리 다음세대의 자연의 접근성을 막을 권리를 누가 주었는가? 개발과 번영의 논리로 청정지역에 시멘트 방파제를 넣을 권리를 누가 주었는가? 이미 창조 이래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며 삶을 살아왔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설정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자연의 손상과 파괴가 자연의 시간에 의한 것이 아닌 개발의 인위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그 파괴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된다. 인간이 자연에 가는 폭력이

39) 유경동, 『기독교, 사회와 소통하기』(서울: 도서출판 KMC, 2007), 257.

며 파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지공사 예산을 삭감하여도 해군 군부세력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 역시 공사를 중단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여당 해군 기지 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논리와 야당이 표를 의식한 수사학적 차원의 기지건설 반대는 제주도민이나 대한민국 시민의 평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들의 세련된 언어로 기지 건설을 합법적인 것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잘 포장된 선전이다. 여기서 한국 웨이커교도인 함석헌이 정치인들에게 하는 비판은 의미가 있다.

“당초 잘못은 씨알을 제쳐놓고 누가 시키지도, 청하는 것도 아닌 것을, 제가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왔던 그 정치꾼들에 있었다. 그들은 씨알을 믿는 것도, 자기를 믿는 것도 아니요, 양키를, 로스케를 믿고 나온 것들이었다. 거기서부터 잘못이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씨알을 못 살게 굴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 가만 두는 일이다. 평화에서 시작하자 말이다.”⁴⁰⁾

그리고 그의 지적처럼:

“국가인답에는 나라란 나라는 모두 다 잡아먹고 내 나라만 남아야 한다는 것이 민족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들의 믿어 오던 종교였고, 그 때문에 예로부터 있던 영원 무한의 참 생명을 믿어 오던 종교는 다 퇴색해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포악한 제국주의의 시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 인류는 허탈감에 빠졌는데, 이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하면, 잔뜩 만들어 쌓아 놓은 핵폭탄을, 말로는 한 번 터지기만 하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을 다

40) 함석헌, 「한민족과 평화」,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제30권 제8호, 1986, 38.

태워버린다 하면서 그것을 없애 버리지도 않고, 군비축소 소리는 해 가면서 아주 영리하고 악질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⁴¹⁾

이제 강정마을에 모인 종교인들의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가 그리고 군부가 겸허하게 수용하여 진정한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하기 위하여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 이다. 그리고 주류 기독교 역시 정당전쟁론이나 현실주의에 근거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변론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소종파 혹은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주장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리고 있다.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종교의 근본과 최종 목표가 분열과 분쟁이 아닌 평화와 생명이기 때문이다.

강정마을은 대립의 현장이 아니다. 그 곳은 평화를 실현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윤리적 공간이고 이데올로기에 감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zone)임을 보여주는 곳이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아 찾을 수 없는 그러나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창조성을 제공하는 유토피아적 평화의 섬이어야 한다. 바다에 위치하여 돈에 붙잡힌바 된 이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통제하려는 군사주의 추종자들이 찾을 수 없는 섬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유토피아를 현실에 투사하는 평화의 섬이어야 한다.

41) 위의 책, 43.

참고문헌

- 기라타니 고진. 『평화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혁명』. 녹색평론사. 『녹색평론』 통권 제 115호, 2010.
- 김동주.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춰라』. 녹색평론사. 『녹색평론』 통권 제 120호, 2011.
- 박충구. 『기독교 윤리사II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박충구. 『예수의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유경동. 『기독교, 사회와 소통하기』. 서울: 도서출판 KMC, 2007.
-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 서울: 나눔사, 2012.
- 이유철.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의 대안적 모델과 베이징 평화 프로세스』. 도서출판 메이데이. 『진보평론』 제40호, 2009 여름호.
- 정원범. 『신학적 윤리와 현실』. 서울: 쿤란출판사, 2004.
- 조영배. 『강정 해군기지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통권 제631호, 2011.
- 함석헌. 『한민족과 평화』.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 사상』 제30권 제8호 통권 제 336호, 1986.
- 레프 톨스토이, 조윤정 역. 『국가는 폭력이다』. 서울: 달팽이, 2008.
- Jacques Ellul. *La Subversion du Christianisme*. 박동열 · 이상민 역. 『뒤틀려진 기독교』. 대전: 대장간, 2012.
- Jonathan Sacks. *Dignity of Difference*. 임재서 역. 『차이의 존중』. 서울: 말 · 글빛냄, 2010.
- John Howard Yoder.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 · 권영경 역.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2009.
- Michel Onfray. *Traité d'athéologie*. 강주현 역. 『무신학의 탄생』. 서울: 모티브북, 2006.
- Reinhold Niebuhr.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차명관 역. 『기독교 현실주의와 정치문제』. 서울: 현대문명과 한국, 1973.
- Saint Augustine. *The City of God*. 조호연 · 김종흡 역. 『하나님의 도성』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Wilfried Röhrich, *Die Macht der Religionen*. 이혁배 역. 『종교 근본주의와 종교 분쟁』. 서울: 바이북스, 2007.
- ‘서경석 목사 “개신교, 제주 강정에서 가톨릭과 맞짱뜨겠다” 선전포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03.02. 인터넷 판.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9>
- ‘강정을 위한 정치는 없다’. 한겨레21. 제902호. 2012년 3월 19일자. 인터넷 판.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582.html
-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360억 확정’.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15일자. 인터넷 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27790.html>
- ‘제주 해군기지 예산 1278억 삭감…31일 여야 합의 처리’. 제주의 소리. 2011년 12월 30일자. 인터넷 판.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912>
- ‘제주해군기지, 삼섬컨소시엄과 대림컨소시엄이 맡아추진’. 뉴스제주. 2009년 7월 24일자. 인터넷 판.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22558>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 평화협력과 <http://www.peace.jeju.kr/>

논문투고일: 2013. 2. 16.

심사개시일: 2013. 3. 23.

게재확정일: 2013. 4. 20.

• 국 문 초 록 •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주도의 강정마을에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국가 간 경쟁 체제 속에서, 그리고 무정부적 국제 관계의 특성 속에서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현실적 요청과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여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다. 이 논문은 기독교 평화주의 입장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문제에 접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첫째, 어떻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이 결정되었는지 사건일지를 통해 추적해 보았다. 둘째, 현실 정치인들과 이를 지지하는 개신교 교회연합이 평화주의자들의 해군기지건설 반대 주장을 들을 의지가 없다는 데서 평화신학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해군기지건설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모든 현실주의적 입장이 결국 군사주의와 토건자본 세력의 집단적 이익을 변호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였다. 셋째, 평화주의자들의 사상에 동의하면서 국가와 군대의 폭력을 고발하는 톨스토이에 주목하였고, 국가와 시민의 상호 복종을 요구하는 요더의 기독교 윤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웨이커교도들의 평등주의를 간단히 기술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가 우월적 폭력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현실주의의 입장, 기독교 근본주의, 정당전쟁론, 톨스토이, 상호적 복종, 평화주의의 개신교 소종파.
